



번거로움 싫어서
호젓하게 피는 꽃

너러움이 싫어서
새하얗게 피는 꽃

외로움이 싫어서
무리지어 피는 꽃
—구경분, 『별려꽃』

www.wowdangsin.com 2011.06

2011 6 JUNE
www.wowdangsin.com



너는 나의 사랑이다!
춤소중한 당신
You, So Precious



민달을 거꾸로 꿰는 공존하는 세상

최덕기 주교

특집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며
잃어버린 온통을 찾다
내가 먼저 하느님의 온통이 된다

www.wowdangsin.com 2011.06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배어나는

서울 서교동 본당 청년 봉사단

'위드'

4차_박실희 사진_최주성



‘위드’(W.I.T.H)는 20~30대 청년으로 구성된 서울 서교동 본당 봉사 단체다. 위드는 ‘We are In The Holy love’(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설립 목적은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하여 복음을 실천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 사랑을 베푸는 데 있다. 단원만도 현재 49명이나 된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6~8시 서교동 성당 로비에서 100여 명의 노숙자에게 배식 봉사, 대월 둘째·셋째 토요일 10~13시에는 성가 복지병원에서 청소와 환자 돌봄 활동,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후 2~3시에는 살레시오회가 운영하는 나눔의 집(선일동·명파동·목동·대림동) 청소년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지도하고 있다. 학습 지도는 1대 1로 전담하며, 정서적 교류뿐 아니라 멘토 역할도 하고, 평소에 틈나는 대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 김사연(베냐) 단원은 나눔의 집에서 봉사하는 단원 대부분이 아이들의 엄마라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곳 봉사만큼은 지속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한창 예민한 나이의 청소년들이라 담당 선생님이 그만두면 자신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소현(엘리사) 단원은 나눔의 집 청소년들에게 매주 정해진 시간에 자신들을 만나러 오는 선생님의 존재를 통해 어른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신이 전담하는 학생은 고3 수험 생활을 마칠 때까지 도와줄 것이란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반기고, 의지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단원들.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들의 재능과 시간을 그들에게 온전히 내어놓는 단원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단원들 모두가 직장인이나 대학생 청년이다 보니 매주 토요일·일요일에 하는 봉사 활동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부터 하는 배식 봉사가 특히 그렇다. 한창 젊은 나이들이라 친구들과 금요일 밤 약속도 많을 텐데, 이들은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 이런 유혹쯤은 가볍히 이겨 낸다고 한다. 오승훈(예) 단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고 할 정도로 새벽 배식 봉사를 무척 좋아한다. 배식 봉사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박준성(배오리) 단원은, 병원 봉사를 하면서는 건강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다고, 교통사고를 당해 몸과 마음을 다친 안재철(안재산에) 단원은 그때 다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생각에 시작했는데, 봉사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좋아졌다고. 배식 봉사 담당 안혜경(스파 데세) 단원은 남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를 통해 자신의 삶이 더 중요워지고,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물론 노숙자들에 대한 편견도 있었지만, 배식 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임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까지 느낀다고.

'위드'의 신입 단원들은 병원 봉사부터 시작한다. 한 달에 두 번 활동하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적인 부담이 적어서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팀보다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병원 봉사는 환자를 돌보는 일보다 주로 병실 청소를 한다. 사실 단원들은 환자와 꼭 함께 기도하고, 말동무가 되어 주고,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보살피 주러 병원 봉사를 시작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맡기는 일은 청소뿐이어서 처음엔 실망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병원 봉사 담당 김희주(명애) 단원은 "나의 만족보다는 도움을 받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게 진정한 봉사"라며 단원들 모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단원들 모두 오롯이 봉사를 하기 위해 입단했지만, 신앙 공동체로서 단원들 간의 친교

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매주 청년 미사에 다함께 참여하고, 미사 후에 모여 식사하며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친목을 다진다. 매년 소풍과 성지순례도 가고, 5월에는 영타도 다녀왔다. 정은희(인포니) 단장은 "신앙생활을 혼자서만 하다 보면 자칫 신앙심이 흐트러질 때도 있는데, 단체 활동을 하면 단원들이 서로 기도해 주어서 나약해진 마음을 다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렇게 다양한 나이의 청년들이 잘 어울려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총이라고 말했다.

올해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한 김시형(스파데) 단원은 봉사의 가치를 "우리가 이웃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고, 우린 또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말을 들으니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 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루카 6:38)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다.



'위드'의 금년 모토는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이웃과의 사귄을 통해 자아의 치유와 성장을 돕고 참된 삶을 지향한다"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위드'의 청년 단원들이 그 때가와 열정으로 오래도록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심어 주기를, 그리고 그들의 우정도 영원하길 바란다. ☺